



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매일경제는 8.13일 「월 270만원 버는 청년도 월세 지원...중위소득 '100% 이하'로 확대」 제목의 기사에서
- “소득 요건을 현행 ‘기준중위소득 60% 이하’에서 ‘100% 이하’로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, 실질적인 주거비 보전을 위해 지원 금액 또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- 정부는 현재 20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,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3634)
		담당자	사무관	이태경 (ltg1119@korea.kr)
	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	책임자	과 장	박현창 (044-214-27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성 (jsjohn@korea.kr)